

## 동아시아 영상작품 속 ‘신괴 열풍’ 현상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supernatural fever’ in the film and  
TV works East Asian

### 주저자

장잉팅 (Zhang, Yingting) 749822905@qq.com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박사과정

PhD course, Dong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Design

### 교신저자

이동훈 (Lee, Dong-hun) papamac@hanmail.net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교수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투고일	2019.12.09 .	심사일	2020.01.22	게재확정일	2020.01.28
-----	--------------	-----	------------	-------	------------

# 동아시아 영상작품 속 ‘신괴 열풍’ 현상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supernatural fever’ in the film and TV works East Asian

### 목 차

1. 서론
  2. 신괴 문화의 기원과 발전
    - 2-1. 신괴 문화의 기원
    - 2-2. 신괴 열풍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
  3. 한·중·일 신괴 영화에 대한 비교 분석
    - 3-1. 인물 형상화
    - 3-2. 색채 의미
    - 3-3. 스토리
  4. ‘신괴 열풍’ 현상의 의미와 가치
    - 4-1. 전통적 민족 요소의 구현
    - 4-2. 영화에 내포된 풍부한 정신적 의미
    - 4-3. 민족정신의 발양
  5.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The supernatural element reflects the primitive beliefs and ways of thinking of human beings, which includes diverse sociality, folklore and religiousness of all countries. As the attention to film and television works reflecting supernatural element increases in recent years, more TV works featuring supernatural element are made. The reason why supernatural elements are continuously used in the creation of modern films and televisions is that the metaphorical thinking contained in supernatural elements can show the national spirit and realize a new encounter of tradition and modernity, so as to better reflect contemporary social and cultural phenomena. Based on the ‘supernatural fever’, this research analyzed characters, color meanings and story contents in supernatural TV works of Korea, China and Japan to explore reasons for differences of ‘supernatural cultures’ among the three countries and their cultural basis and social values. Besides, this research also discussed how to re-create the original vitality of their national cultures by utilizing their inherent characteristics and tastes.

The value of the 'supernatural fever' lies in the inherent feature of 'reflecting the truth through imagination', which shows the vitality beyond the time.

**keyword**

supernatural beings, traditional elements, folklore beliefs,

**논문요약**

신선 요괴 요소의 탄생은 사람들의 원시신앙과 사고방식이 반영된 모습으로 각국의 풍부한 사회성, 민속성, 종교성을 함축하고 있다. 최근, 신선 요괴 소재를 다룬 영상작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함께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다. 신괴 요소가 현대 영화 창작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정신에 대한 은유적 사유, 전통과 현대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재미있게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괴 열풍' 현상을 배경으로 신괴 영화의 인물 형상화와 색채 의미, 스토리 내용분석을 통해 한·중·일 3국의 신괴 영화를 비교 분석한다. 3국의 '신괴문화'의 차이를 조성하게 된 원인을 탐구하고 그 문화적 바탕과 사회적 가치를 찾아보고자 한다. 민족 고유의 특색 및 정취를 활용하여 민족 문화의 근원적 생명력의 재창조라는 신괴열풍 현상의 가치는 '상상을 통한 진실의 반영'이라는 그 고유한 특징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생명력을 보여준다.

**주제어**

신선 요괴, 전통적 요소, 민속신앙

**1. 서론**

오늘날 '신괴 열풍'이 점진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 신괴 요소는 영상작품에서 시공을 초월한 독특한 환상적 성격과 심오한 철학적·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동아시아인들의 사상에 깊이 자리잡아 그들의 생명의 깊이를 풍부하게 해준다. 사람들은 이러한 영상이 나올 때마다 반응이 뜨거워 이제 신괴 요소는 동아시아 영상작품에서도 중요한 소재로 자리잡게 되었다.

신괴 요소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일반 대중들의 사고방식으로 원시 신앙이 반영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통치자의 이데올로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신괴 요소는 역사가 흘러도 여전히 그 왕성한 생명력을 통해 오늘날 대중 영상문화의 문화적 원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영상작품 속 신괴 요소의 표현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의 원시신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 자료와 영상 자료 분석을 통해 한·중·일 3국의 신괴 문화의 기원을 파악하고 개별 국가의 민족성, 종교성, 사회성을 결합하여 한·중·일 영화 작품의 '신괴열풍' 현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문은 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신괴 문화의 기원 및 발전에 대해 한·중·일의 자연 환경 요소와 민속 종교 요소를 통해 3국의 신괴 문화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한·중·일 3국의 신괴 영화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주로 영화 속 인물 형상화, 색채 의미, 스토리 내용검토를 통해 3국의 전통 요소, 문화 상징, 사회 현황 등을 결합하여 신괴 영화 작품의 차이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셋째, '신괴 열풍'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적 측면은 먼저 국가의 민족 요소를 드러내고, 영화적 콘텐츠를 풍성하게 하며, 민족정신을 널리 알려 3국의 신괴 영화에 보다 풍부한 내용과 매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신괴 문화의 기원과 발전**

신교 문화는 인류 문명의 기원으로서 인류의 기억 속에 남겨진 태고의 역사 이야기이자, 인류의 '자연 정복'에 대한 염원과, 신비롭고 폭넓은 인류 문명을 수없이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해 이성적인 안목으로 신교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고 인류 문명의 기원을 꿰뚫어 보고자 하였다. 신교 문화에 관한 기나긴 연구에서 신교 문화와 과학의 지위도 끊임없이 바뀌었다. 헤겔에 따르면 예술은 상징형, 고전형 그리고 낭만형의 발전 단계를 거친 후 불가피하게 몰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추상적인 개념 인지 방식인 철학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 하였다.<sup>1)</sup>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신교 문화는 전면적으로 다시 부흥하였고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신교 문화는 문예 분야를 휩쓸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화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신교 문화는 끊임없이 대중문화에 녹아들면서 영화와 드라마 등을 통해 재창조되고 있다.

신교 문화의 재생산과 '신교 열풍' 현상은 사람들 마음속의 집단 무의식 및 신교 감정에 대한 지향을 불러일으켰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이 신교 문화의 영향력을 축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기술과의 공존을 통해 과학기술이 신교 문화를 재생산하는 기본 수단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교 문화의 재생산을 통해 인류의 공통된 심리 감정을 돌이켜보고 현대 문명과 인류생존의 위기에 대한 반성을 호소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 2-1. 신교 문화의 기원

일반적으로 신선과 요괴에 대해서 사람들은 낯선 느낌을 받진 않지만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신선과 요괴에 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여 각 국가와 시대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각 지역의 신선과 요괴는 본질적으로 비슷하다. 단지 각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이다. 신선과 요괴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의미하며 동아시아 각국의 민속문화와 신선 요괴 문화의 맹아는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 한·중·일 자연환경 요소의 비교

한 국가의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은 각 민족 문화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산지는

한반도의 2/3를 차지하고 지형이 다양하며, 낮은 산과 구릉, 그리고 평원이 교차되어 분포하고 있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남한에서 가장 큰 산으로 고대부터 내려온 전설에 따르면 신선이 한라산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따라서 과거의 한라산은 영주산(瀛洲山)으로 불리기도 하여, 금강산과 지리산을 포함해 삼신산(三神山)이라 불린다. 귀신은 대부분 나무나 돌 등 자연 요소에서 생성되었는데, 예컨대 귀수산(龜首山) 등이 있다.

중국은 그 역사가 유구하고, 지형이 복잡하며, 고원과 산지가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기후가 따뜻하고 습윤하여 세계를 대표하는 농업 국가로 물자자원 역시 풍부하다. 지난 몇 천년에 걸쳐, 중국인들은 자연속에서 바다를 끼고 토지를 계량하여 수많은 작물과 목축을 길러내어, 국가의 자연 모습을 변화시켜왔다. 따라서 중국인이 자연에 가진 감정은 복잡하며, 자연의 선물에 감사하며, 자연의 벌을 두려워하고, 또 자연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연의 정령인 신선 요괴부터 원시시대부터 숭배해온 신선까지 그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중국의 신선과 요괴사상은 일찍이 춘추전국시대의 문헌에 등장한다. 동한(東漢)시대의 도교 경서인 <태평경(太平經)>은 도교사상, 유가사상, 음양오행, 무술(巫術)사상 등을 융합하여 자신만의 신학체계를 형성하였다. 또 그와 동시에 천명사상과 '천인합일' 사상을 선양하였다. '태평성세'를 이룩하기 위해 군주 역시 '명(明)', '인(仁)'의 자세를 요구하였다. 군주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인(仁)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신선 요괴 사상을 통해 상서(祥瑞)관념<sup>2)</sup>과 재이(災異)관념<sup>3)</sup>을 만들었다. 이에 반해 초기 일본인의 신앙은 원시 신도(神道)로, 신도는 엄격한 규범이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며 자연숭배와 영혼숭배, 그리고 저승을 기본으로 삼는다. 일본인의 신념 속에는 모든 생물이 일단 죽으면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 저세상으로 가게 된다. 나무, 산, 암석 등을 매개로 삼아 이승과 저승을 연결한다. 도교가 일본에 유입되면서 중국의 음양오행이론을 기반으로 한 음양도(陰陽道)가 생겨나, 음양사가 출현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이로써 후세에는 무녀와 같은 신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유명한 ‘백귀 야행(百鬼夜行)’ 역시 도교 속 ‘물구 성정(物舊成精)’의 사상을 흡수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고대신화는 상고시대의 원시신앙으로 올라간다. 하늘신은 가장 높은 신으로 세계 모든 만물을 능가한다. 일본 열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해안에 위치하여 그 땅에는 원시삼림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그 면적이 전체 일본의 90%나 된다. 따라서 고대시대부터 삼림은 일본인의 생활방식 형성에 큰 작용을 하였다. 또한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여 일본 내 약 200여 개의 화산이 존재하며, 지진의 발생빈도도 빈번하다. 따라서 일본인은 자연을 숭배하면서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본의 귀신은 대부분 자연에서 나타난 산물이 많다.

[표 1] 한·중·일 자연환경 & 신괴 분류 비교 분석

	한국	중국	일본
자연 환경	산지가 많고 지형이 다양함	지형이 복잡하고 자원이 풍부함	광활한 원시림 지진이 빈발함
신괴의 분류	신괴는 주로 산림과 돌에 의해 배태됨	신괴의 종류는 다양하며 생명체와 비생명체는 모두 신괴가 될 수 있다	신괴는 대부분 자연계에 잉태된 산물

### 한·중·일 민속종교 요소의 비교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가까이 예부터 유교와 불교 문화의 영향 아래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서양 문화가 동아시아 각국에 유입되고, 한·중·일 세 국가에서 현대화가 진행되었는데, 기독교는 한국에서 매우 큰 발전을 이루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와 불교는 한국의 주요종교로, 대중교와 단군교 등 전통종교는 소수종교가 되었고, 무속은 민간신앙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종교는 점진적으로 다원화된 국면으로 변화하면서 관용의 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역시 한국의 신선 요괴 속에서도 등장한다. 한국의 수많은 전통적인 신선과 요괴는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종종 인간세계를 들여다보며 사람과의 접촉을 좋아하며, 또한 사람들과 친밀하고 조화로운 관계에 위치한다.<sup>4)</sup>

일본의 요괴학 대사라 불리는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는 “신선과 요괴는 단순히 공허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만약 민간의 전설이나 또는 신화 이야기를 통해 그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들은 과거 인류가 긴 시간동안 길러온 문화적 세속으로서, 그들에 대한 감정이 마치 피가 물보다 진한 것과 같은 관계임을 이해할 수 있다.”<sup>5)</sup> 미즈키는 자연환경은 신선과 요괴가 형성한 토양이기 때문에, 민속종교는 그들이 성장하는 양분이라 생각하였다.

[표 2] 한·중·일 민속 종교 & 신괴(神怪)특징 비교 분석

	한국	중국	일본
민속 종교	다원적으로 공존한 종교 패턴	유교·도교사상, 음양오행, 천인합일	자연숭배, 영혼숭배, 피세관(彼世觀), 신도
신괴의 특징	신괴와 사람의 관계가 긴밀하며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함	대부분이 행운이나 재앙을 상징하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님	대부분이 현세에 대해 원한을 품고 다른 세상에 가기를 꺼림

### 2-2. 신괴 열풍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

많은 사람들은 ‘비(非)과학’을 가지고 신선 요괴 문화를 질문하고자 한다. 신선 요괴는 확실히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이 모든 것을 가능하는 유일한 기준도 아니다. 신선 요괴 문화는 과학의 범주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형태로 존재하며, 과학 이외의 방법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개별 국가와 민족의 신선 요괴는 현대사회 심지어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도 사라지지 않으며, 그 다양한 존재 양식을 가지고 대중 앞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첫째, 신괴 문화의 본질에 대해 말하자면, 신괴 문화는 각종 예술 형식과 어우러지고 공생을 이룰 수 있다. 멜레틴스키(E.M. Мелетинский)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예술은 신화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징 수법을 답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 탄생 초기의 시, 음악, 가곡, 무용 등 혼합된 예술 형태 역시 승계하여 신괴 문화의 종합적 학문 속성을 드러낸다.<sup>6)</sup> 이처럼 신괴 문화의 다학제적 속성은 21세기 대중 매체 예술 분야에서 종족과 문화를 뛰어넘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와 사유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신괴 열풍 현상은 신괴 문화를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술, 문학, 종교 등의 분야에 활용하여 신괴 문화의 창작 근원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신화의 재창작 현상은 사회 환경과 대중 심리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은 산업 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정신적 퇴폐와 생존의 위기를 돌이켜 보면서 서양의 이성적이고 차가운 과학기술 이외의 정신적 구원과 마음의 치유를 찾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 세계화가 초래한 문화의 방향 전환과 재구성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포용하면서도 인류의 공통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다. 인류의 공통된 유년 시기의 추억인 신괴 문화는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결집시키며 그 속에서 인류 공통의 근원적 감정을 찾도록 한다. 따라서 ‘신선 요괴 열풍’ 현상은 당대의 창작자가 이성 또는 감정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근원적 문화생성의 흔적을 갖고 있다. 신선 요괴 요소는 이미 문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각종 예술까지 확장되며, 특히 영상예술의 영역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다.

### 3. 한·중·일 신괴 영화에 대한 비교 분석

#### 3.1. 인물 형상화

한국 문화에는 유가의 함축적이고 내성적인 품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발호정, 지어예(發乎情, 止於禮)”의 동양 문화관을 승계한다. 고려대학교에서 편찬한 <한국민속대관>의 머리말에서 “지금까지 유교는 한국 사회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실상 유교는 사람들의 사상과 성격을 변화시켰음은 물론 사회의 구조, 습관, 제도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또한 서구 문화의 급속한 유입으로, 한국 문화는 “동아시아 현대성”의 특징 및 전통 유교와 서양 문화의 상호작용 및 결합을 드러낸다. 한국영화 속 인물 캐릭터는 한국의 동아시아 현대성의 특수한 문화 및 언어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인물형상에 있어 동아시아 문화 특유의 유가적 전통윤리뿐만 아니라 서양의 현대성 중 자아 주체성 및 이성에 대한 긍정 및 추구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인물들은 완전한 선인 혹은 악인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특정한 배경을 바탕으로 전통의 유가적 문화윤리 및 현대적 가치관을 결합하여 선과 악을 넘나든다. 영화 <부산행>에서는 인물에 대한 부각을 통해 재난 앞에

서 인성의 선과 악의 전환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남자 주인공은 평범한 사람이며 흔히 볼 수 있는 이기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도 재난 앞에서 먼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을 겪은 후 그의 인격에 변화가 발생하고 마지막 딸과 동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며 좀비가 된다. 버스 회사의 상무는 영화에 등장하는 악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생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좀비로 변하기 직전 남자 주인공에게 부산에 살고 있는 자기의 모친한테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도 완전한 악인이 아닌 마음 속에 효도라는 긍정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다. 영화 <괴물>에서 아버지 캐릭터에 대한 묘사는 더욱 일반적 대중의 복잡한 심리에 가깝다. 오징어 다리를 훔쳐먹고 늦잠을 자는 행동들은 그의 게으름을 드러내고 한강에서 괴물을 구경하는 모습은 가십 거리에 관심이 많음을 나타냈으며 한강에서 표지판으로 괴물을 때리는 모습은 그의 용감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맞서는 용기를 보여준다.

중국의 경우 전통문화의 핵심 사상인 유가 사상이 이미 생활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으며, 그 영향권 안에서 중국적 영화 문화를 형성시켰다.

유가 사상의 핵심은 중용의 길(中庸之道) 즉 군자의 길(君子之道)이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 수양과 자아 개선을 진행하여 스스로를 선하고 인의를 지키며 도덕적인 사람으로 육성하도록 교육하는 길이다. 이는 중국 영화의 인물 캐릭터 형상화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영화 <몽기강: 영웅의 귀환(大聖歸來)>에서 손오공은 법력을 잃고 오행산 밑에 깔려 오백 년의 시간이 흐른다. 그러나 이 오백 년은 여래불(如來佛)의 최초 의도에 이르지 못하고, 손오공은 여전히 마성(魔性)을 지닌 냉정하고 이기적인 원숭이 요괴이다. ‘강류아(江流兒)’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차갑고 경계가 심했으나, 강류아의 감화를 통해 새롭게 자유를 얻게 되고 친구들까지 가지게 된다. 그는 점점 온화하고 선하게 변하여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위해 법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괴와 싸우기도 한다. 영화에서 유가사상과 중용지도(中庸之道)는 손오공의 변화를

통해 구현되며, 이것이 바로 자아의 수양과 개선의 과정이다. 그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차가운 부정적 이미지에서 선하고 정의로운 긍정적 이미지로 변하고 자아 인격의 변화와 승화를 이룬다. 애니메이션 <대어해당(大魚海棠)>의 주인공 ‘춘’은 처음에 자신의 무지와 제멋대로인 성격으로 인해 자기의 부족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게 되고 나중에는 부족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게 된다. 춘의 성격 변화도 중용지도의 구현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인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남을 구하는 위대한 인물로 전환된다.

일본의 경우, 일본 문화는 중국 전통문화와 서양 근대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 두 가지 문화가 어우러져 일본 사회의 독특한 ‘수치(羞恥)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는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분석한 일본인들의 외적 행동과 내면 심리를 분석하고 일본인들의 가치 체계를 고찰한 후 도출한 결론이다.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매우 중요시하고 모든 사람마다 자신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매우 중요시한다. ‘수치 문화’의 연장으로 ‘은혜(恩)’와 ‘의리’ 관념이 일본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박히게 되었다. 즉 타인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매우 무거운 인정의 빚을 진 것으로 여기며 사람들은 아무 이유없이 도움 주는 것을 매우 꺼려하며 심지어 도움을 주는 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데올로기와 경제 발전의 충돌은 일본 사회 대중들의 정신을 억압하였고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에 소원하고 냉정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였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바로 사람과 외부의 장벽, 사람과 자아의 장애물을 주제로 인성에 대한 깊은 사고를 보여준다. 또한 “자아 구원”이라는 깊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치히로’는 부모를 구하기 위해 ‘유바바’와 계약을 맺고 그를 위해 일을 하게 된다. 겁이 많은 성격과 인간의 신분으로 인해 처음에는 귀신 세계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조롱을 당하게 된다. 나중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현실 세계에 대한 그리움에 치히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 치히로는 더러운 것을 참고 부패의 신(나중에 강의 신(河神)임을 알게 됨)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혼자서 용

감하게 얼굴 없는 남자를 유인하여 자신을 찾아 오게끔 하지만 그가 온천장의 직원들을 해치지 않도록 행동하고 백용을 구하기 위해 유바바의 언니를 찾아간다. 그녀는 차갑고 겁이 많은 아이에서 착하고 열정적인 아이로 변해간다. 온천장이라는 판타지 귀신 세계에서 자기의 부모님과 백용, 얼굴 없는 남자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자신의 정신적 인격까지 수양하여 “자아 구원”에 이른다.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소피는 마녀의 마법으로 인해 할머니로 변한다. 이로 인해 소피는 내성적이고 열등감에 빠진다. 나중에 소피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만나게 되는데 성에서 소피는 가족의 정과 사랑을 느끼게 되고, 감정의 힘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영화는 소피라는 캐릭터의 변화를 통해 일본 대중들의 억눌린 정신의 현황을 뛰어넘고자 하며 사랑으로 낙담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자 한다.

[표 3] 한·중·일 신괴(神怪) 영화의 인물 부각 비교 분석

	한국	중국	일본
			
작품	<부산행>	<몽키킹: 영웅의 귀환(大聖歸來)>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원인	전통윤리와 서양문화가 결합되어 이성과 주체성에 대한 동아시아적 현대성의 특징	유가 전통 사상에서 중용지도(中庸之道)의 영향을 보임	수치 문화가 초래한 인간 관계의 소원함과 냉정함 : 사회 저항적 성격
특징	유가의 전통 윤리관념과 서양의 현대적 가치 관념이 혼합된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물 이미지 형상화	자기 개선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도덕을 가진 이상적 인물로 묘사	이기적 냉정함에서 열정적이고 착한 자아 구원을 이룬 인물 이미지로 표현

### 3.2 색채 의미

한국인들은 ‘하얀색’을 선호한다. 이렇게 “하얀색을 지향”하는 심미(審美) 습관은 한국 고대시대의 태양 숭배와 하늘신 숭배의 종교 의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하얀색’은 태양신의 상징, 하늘신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했다. 산의 지명에서도 ‘백(白)’자로 지은 이름 예를 들면 태백산, 백운산 등과 같이 매우 많다. 또한 한국은 ‘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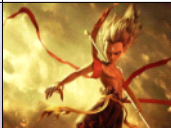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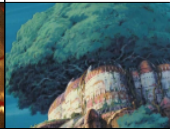
민족(白衣民族)’이라 불리기도 한다. 사료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의 한국은 엄격하게 신분 등급 제도를 실행하였는데 사람들을 세 개의 등급 즉 양반, 양민 그리고 천민으로 나뉘었다. 양반은 당시 국가의 귀족들로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하였고 옷차림이 상당히 화려하였다. 그러나 당시 인구의 3/4을 차지했던 양민과 천민은 색깔이 소박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오랜 시간이 흘러 하얀색은 일반 백성들이 가장 즐겨 입는 색깔이 되었다. 하얀색의 상징성을 제외하더라도 하얀색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호는 하얀색 자체의 순결함에서 온다. 하얀색은 깨끗하고 소박할 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속 깊은 곳의 방향과 막막함을 나타낸다. 애니메이션 <마리아 이야기> 속 하얀색은 신비 소녀 마리의 색채이자 남우를 환상에 빠지게 한 구름의 색상이다. 영상의 결말에서 성인 남우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열차에서 아름다운 기억에 빠져 현실 세계와 허상 세계와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남우가 타고 있는 열차가 마치 환상 속 순백의 구름 안에서 손을 창밖에 내밀어 흰색의 눈꽃을 한가득 받는다. 이 순백의 세계는 남우가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어린시절의 순진한 순백의 꿈이며 그가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이다.

‘빨간색’은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색깔이며 이를 중국인들의 문화 기호로 볼 수 있다. 빨간색에 대한 중국인들의 사랑은 태양과 물, 그리고 피에 대한 조상들의 숭배에서 비롯되었다. 태양은 식물을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불은 짐승을 물리치며 피는 인간의 생명을 나타낸다. 이 세 가지 빨간색 사물들은 조상의 자연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에서 빨간색에 대한 숭배로 전환되게 하였다. 또한 빨간색은 인민 대중의 피와 땀으로 성취된 혁명의 색깔, 이로 중국의 국기 역시 빨간색이다. 빨간색은 중국에서 생기와 길상, 승리와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중국의 신괴 영화에서는 빨간색을 많이 활용하는데 모두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영화 <나타지마동강세(哪吒之魔童降世)>에서 ‘나타’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 성격이 활발하며 친구를 갈망한다. 하지만 마환(魔丸)인 ‘나타’는 태어날 때부터 사악한 힘을 가지고 있어 어려서부터 간혀 성장하고 사람들의 증오와 두려움 속에서 그 힘이 봉인되어 살아간다. 그는 커가면서 부모님과 스승의 사랑 안에서 점

차 감화되어 마지막 대전에서 백성들을 구하고자 봉인을 뚫게 된다. ‘나타’는 빨간색 옷을 입고 손에 빨간색 무기를 들고 적과 싸우며 아무리 적에게 맞아 넘어져도 끝까지 일어나 백성들을 지킨다. 영화는 매우 많은 빨간색을 사용하는데 ‘나타’ 마음 속의 사랑의 각성과 완강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또한 영화 <몽키킹: 영웅의 귀환(大聖歸來)>에서 강류아가 위험에 닥치자 대성은 정의를 품고 사람들을 구출해내려고 한다. 드디어 그는 자신의 힘을 분출하여 봉인된 요괴 원숭이에서 빨간색 갑옷을 입고 빨간 망토를 두른 대성으로 변신하여 요괴 ‘혼돈’과 싸워 승리를 거둔다. 여기서 빨간색은 정의와 승리를 상징한다.

‘초록색’은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색깔이며 ‘일본의 색깔’이라 불린다. 초록색은 일본 문화에서 매우 깊은 문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유명한 문학가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세상에는 일본의 초록색처럼 그토록 다양하고 다채로우며 천차만별의 색깔이 없다.” 초록색은 일본 민족이 어둡고 소박한 성향의 색채 심리와 그윽한 미학적 의식을 나타낸다. 일본은 섬나라 자연 환경의 은혜와 양성을 받아 자연에 대한 일본 민족의 특별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연을 생명을 잉태하는 근본, 미적 감정의 근원이라 생각한다. 이에 따라 초록색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많은 신괴 영화에서 초록색을 사용하여 생명과 자연, 사람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 한 그루의 푸른 고목은 특수한 사명을 띠게 되는데, 즉 인류의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성(城)이 이 고목 위에 지어져, 인류 천년의 문명을 계승하여 하늘을 떠다니게 된 것이다. 여기서 고목의 푸르름은 영화에 아름다운 감상을 더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감동과 함께, 사람들이 자연의 위엄 및 신성함을 깨닫고 ‘천공의 성’이 지닌 무한 매력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웃집 토토로》속 토토로가 사는 거대한 녹나무는 마치 나무가 있는 숲 전체를 보호해주고 있는 듯하다. 이곳은 토토로의 집으로, 토토로는 숲의 수호자로서 인류 또한 함께 수호해주는 존재이다. 《모노노케 히메》속의 거대한 푸른 숲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음울함을 선사하며, 숲이 지닌 신비한 힘과 일본인의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였다.

[표 4] 한·중·일 신괴(神怪) 영화의 색채 의미 비교 분석

	한국	중국	일본
			
작품	<마리아 이야기>	<나타지마동강세(哪吒之魔童降世)>	<천공의 성 라퓨타>
색채	하얀색	빨간색	초록색
의미	아름다움과 깨끗함의 상징, 사라진 사물에 대한 그리움	정의와 사랑, 그리고 완강한 생명력을 상징	자연의 육성에 고마워하고 자연을 두려워한다

### 3.3 스토리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가치관과 민족주의 의식이 매우 강한 편에 속한다. 집단주의 가치관은 개인의 권익을 약화시키고 개성을 억눌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킨다. 한국의 사회 계급은 고착화되어있으며, 소득분배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권위주의와 시민사회 간의 장기적 충돌로 인하여, 한국인들은 민주평등의 사회를 오랫동안 갈망해왔다. 계급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한국의 신괴 영화는 사회 계급 고착화의 심각한 문제를 곳곳이 녹여내었다. 이는 권위주의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며, 또한 사람들의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부산행>에서 좀비의 존재는 감독이 인류가 멸망되는 절망감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닌 복잡한 인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영화에서 진정으로 나타내려고 한 것은 사회 안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계급의 불평등과 불공정한 이기주의를 드러낸다. 영화 <부산행>에서 관객들의 가장 큰 분노와 절망을 느끼게 한 것은 좀비들이 인류를 광적으로 죽이는 장면이 아닌, 인류의 상호 적대감과 불신이었다. 정치에 대한 풍자 역시 또 하나의 특징적 요소로 볼 수 있다. <부산행>에서 사태가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폭동이라 선포하며 이미 효과적으로 제압되었고 정부를 믿으라는 선전만 진행된다. 또 좀비의 규모가 확대된 후에도 정부의 대응 방식은 군대에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뿐이었다. 영화 <괴물>에서 아버지는 실종된 딸의 전화를 받게 되지만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 정부가 무능하니 개인의 노력으로 갑자기 나타난 ‘괴물’에 맞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화는 스토리를 통해 현실의 잔혹함을 관객들에게 알려준다. 개인의 노

력은 잔혹한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미약하고 무기력하다. 이토록 냉정한 사회와 무능하고 황당한 정부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책임을 보여준다.

중국의 신괴 영화는 교육적 의미의 전달을 중시하는 편이며, 특정한 교훈과 영화 줄거리가 결합하여, 신괴 영화의 예술적 특징을 충분히 발휘하는 동시에 도덕적인 내용을 서술한다. 창작에 있어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문이재도(文以載道)’<sup>7)</sup> 적 전통 사상의 계승이라 볼 수 있다. 신중국 이후 ‘혁명문예운동’의 경향성이 점진적으로 심화하여, 최종적으로 ‘우교우락(寓教于乐)’<sup>8)</sup>의 심미적 특징으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신괴 영화 작품의 창작자는 시종일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최우선목표로 삼았으며, 이는 또한 중국의 오랜 ‘경세치용(經世致用)’<sup>9)</sup>의 실용주의적 예술관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영화 <요괴 사냥단>의 남자 주인공은 가난한 백성으로서 원래 요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요괴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편견을 버리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선함과 사랑을 되찾아 요괴를 보호하면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권력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초심을 지킨다. 영화 <나타지마동강세(哪吒之魔童降世)>에서 ‘나타’는 신괴이기에 마음속의 사악함을 제거하기 어렵다. 부모의 교육을 통해 타고난 짓궂은 성품을 버릴 순 없으나 누군가를 해치는 잘못은 범하지 않았다. 온갖 좌절을 겪었으나 언제나 백성들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고자 생각하였으며 나중에 악인의 이간질에 빠졌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으로 아들의 행복을 바꾸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타’는 결국 사악함과 싸워 이기게 된다. 마을의 백성과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였다. 이 신괴 영화는 우리에게 착한 인성으로 돌아가야 하고 어떻게 복잡한 사회에서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오며 진, 선, 미의 초심을 잃지 않는가를 알려주며 어떻게 비천한 신분에도 권력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신도(神道)는 일본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전통적인 민족 종교이다. 일본 학자 우메하라 다케시는 신도(神道)교의 본질은 자연숭배 즉 “영혼에 대한 숭배”라 하였다. 신도(神道)는 이미 일본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되어 생활 곳

곳에 스며들었다. 일본의 신사는 일본 열도의 곳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건강, 결혼, 주택 건설, 시험, 명절 축하에 앞서 모두 신사에 가서 참배한다. 신사에는 고대 시기의 신과 천황, 조상, 영웅 인물을 공양하는 외에 대산, 하천, 기목(奇木), 괴석(怪石) 등 자연 경물과 현상들도 있다.

일본의 신괴 영화는 “영(靈)의 숭배”를 매우 직접적으로 해석한다. <이웃집 토토로>에서 아버지는 두 딸을 데리고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간다. 나중에 작은딸 메이가 몸집이 크고 귀여운 고양이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토토로의 집이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진 큰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아버지는 토토로를 일본 전설에 나오는 늙은 나무에 살고 있는 숲 주인이라 생각한다. 역사 고고학자인 아버지는 일본의 신화 전설을 잘 알고 있으며 요정의 존재를 믿는다. 그는 ‘영의 숭배’ 사상을 딸에게 가르쳐 주고 딸들을 데리고 나무에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나무와 토토로라는 영적 존재와 정신적 존경과 소통을 이루길 바란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치히로는 오염이 된 강의 신을 더러워하지 않고 그의 몸에 묻은 오물을 열심히 닦아주어 강의 신이 다시 신체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강의 신은 감사를 표하기 위해 치히로에게 부모를 구할 수 있는 보물을 선물하였다. 이 영화들은 일본인들의 ‘영의 숭배’를 나타내고 자연 만물을 존중하고 대접해야 행운이 온다는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표 5] 한·중·일 신괴(神怪) 영화의 스토리 내용 비교 분석

	한국	중국	일본
			
작품	<부산행>	<나타지마동강세(哪吒之魔童降世)>	<이웃집 토토로>
원인	계급 토착화와 불평등이 초래한 권위주의에 대한 불만과 민주 사회에 대한 갈망	문이재도(文以載道)의 전통사상을 승계하여, 우교우락(寓教于乐)의 심미(審美)적 특징을 형성	신도교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 숭배와 ‘영(靈)’에 대한 숭배
내용	영화를 통해 사회의 불공정한 현실을 폭로하고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비판	주류 가치관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진선미를 찾아 인생의 가치를 실현해야 함을 권고	자연 만물에 대한 두려움과 보호를 드러내고 자연을 존중해야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

#### 4. ‘신괴 열풍’현상의 가치와 의의

##### 4.1 전통적 민족 요소의 표현

한·중·일 3국은 오랜 역사의 변천 속에서 문화, 풍속 등 자신이 가진 고유한 민족적 요소를 축적하여, 특색있는 민족의 상징성을 전수 및 계승하여 왔다. 신괴 영화 작품들에서 전통적 요소의 사용은 관중의 집단 무의식적 심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정서 및 문화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으며, 자국의 문화 소양을 보여준다.

영화 작품은 각 국가 및 민족 간 교류의 중요 매개체로서, 이중 민족적 요소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잘 만들어진 신괴 영화는 신화 세계에 대한 대중들의 상상과 민간 생활에 대한 기록을 영화로 표현하며 한 국가의 민족 문화 특징을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애니메이션 <천년호(千年狐) 여우비>의 경우 한국의 많은 민간 전설에서 등장하는 여우에 대한 숭배를 나타내며, 중국 애니메이션 <대어해당(大魚海棠)>의 주인공 이미지는 신화 고서(古書) <산해경>에서 기원한다. 일본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경우 그 영화적 배경과 인물의 묘사에서 모두 농후한 일본적 풍속을 보여주고 있다. 신괴 영화 작품 창작에 있어 민족 고유의 특색 및 정취를 활용하는 것은 민족 문화의 근원을 다지며, 근본적으로 민족 문화의 생명력 및 창조 능력을 향상시킨다. 세계화 추세가 강해질수록 개별 국가와 민족이 가진 고유한 색채의 중요성은 전 세계 관중들에게 보다 풍요롭고 다양한 심미적 체험을 선사할 수 있다.

##### 4.2 영화에 내포된 풍부한 정신적 의미

신괴 요소는 점차 동아시아 문화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인기있는 대중문화의 소재가 되었다. 구미 국가들도 신괴 요소가 가진 풍부한 문화 가치에 주목하면서 신괴 요소를 지닌 여러 판타지 영화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신괴 요소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에 풍부한 이야기 소재를 제공하면서 대중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전통적 문화 자원으로 신괴 요소는 각국의 민족문화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동시대 사회의 현상을 드러낸다. 또한 인류의 복잡한 심리를 반영하는 매개체가 되어 ‘한

중유진(幻中喻真)<sup>10)</sup>의 효과를 지닌다.

한국의 신괴 영화는 늘 사회 현상을 폭로한다. 이 가운데서 신괴 요소들은 일정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관객들의 생각을 일으킨다. 중국의 신괴 영화는 사상성과 시대성을 결합하여 훌륭한 중국의 문화 사상적 내용을 영화를 통해 관객들의 내면세계에 스며들게 하며, 도덕적 인도의 교육 기능을 가진다. 일본의 신괴 영화는 늘 신령에 대한 숭배를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에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경고를 드러낸다.

신화주의 흐름에서 영화 작품 속 <신괴 열풍> 현상의 유행은 영화의 정신적 내용을 심화시키고, 점점 더 사람들의 사상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는 우리에게 현재와 과거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생활방식을 반성하며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찾고, 시대가 요구하는 다원적인 가치를 구축하는데 긍정적 작용을 한다. 또한 영화 속 신괴 요소의 활용은 영화에 더욱 깊은 문화적 바탕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영화 발전에 더욱 광활한 공간을 제공한다.

#### 4.3 민족정신의 발양

한·중·일 3국의 민족정신은 각 나라의 생활습관, 역사문화, 철학사상 등이 융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각 민족에 뿌리내린 교양과 심리상태를 보여준다. 한·중·일의 신괴영화가 민족정신을 담고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 또한, 사람들이 이러한 민족정신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지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민족분열과 식민통치를 겪은 한국은 강한 민족주의 및 일종의 근대역사에 대한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신괴영화에 있어 독립 및 반항의 정신을 표출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영화 《괴물》 중 시민들의 괴물과 정부에 대한 저항 등이 있다. 중국 무협 문화 중 권선징악의 “의협(義俠)”의 정신은 중국 전통윤리 도덕관에서 발원한 것으로서, 중국 민족정신의 구원이기도 하다. 예로, 《나타지 마동강세(哪吒之魔童降世)》라는 중국 애니메이션 중 ‘나타’는 가족의 선량한 마음에 동화되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악의 세력에 대항하고, 결국 악인 또한 이에 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 일본의 ‘무사도’ 정신은 일본 정신의 일부로서, 그중

충효를 중시하고, 약속을 지키며, 기꺼이 희생하는 정신 등은 일본의 신괴영화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치히로는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바바’와의 약속을 지킨다.

신괴영화를 통해 민족정신을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문화적 자산인 소프트파워를 향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과 관념을 이끌고, 이로써 현대 사람들이 이러한 독립적 저항 정신, 권선징악 등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도록 한다.

### 5. 결론

신괴 요소가 현대 영화 창작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정신에 대한 은유적 사유, 전통과 현대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재미있게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괴 열풍’ 현상을 배경으로 신괴 영화의 인물 형상화와 색채 의미, 스토리 내용분석을 통해 한·중·일 3국의 신괴 영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3국의 신괴문화의 차이를 조성하게 된 원인을 탐구하고 그 문화적 바탕과 사회적 가치를 찾아보았다.

한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힘든 생존 환경과 고달픈 식민지 맥락, 사회 계급의 토착화로 인해 자원 배분이 불공평한 현상이 심각하고, 대중들이 민주와 평화에 대한 갈망이 크다. 따라서 한국의 신괴 영화 스토리도 대부분 사회적 문제를 폭로하고 불공정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표현되고 있다. 유가 윤리와 서양 문화의 결합으로 탄생된 동아시아적 현대성으로 인해 한국 신괴 영화는 전통 유학 윤리와 서양의 주체성과 이성의 관념을 융합시켜 인물 형상화에서도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인 특징을 가지며, 단순한 선과 악이 아닌 다면적 심리를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또한 한국인들의 ‘흰색을 지향’하는 심미(審美) 습관도 한국 신괴 영화에 등장하는 하얀색이 깨끗하고 소박하며 아득한 상징성을 지니도록 하였다.

중국은 “문이재도(文以載道)”의 전통 사상 속에서 “우교우락(寓教于乐)”의 심미(審美)적 특징을 파생시키고, 신괴 영화의 스토리 역시 전통적 도덕 규범에 부합되는 지향성을 보인다. 유가 전

통문화에서 ‘중용지도’의 영향을 받아 중국 신괴 영화의 인물은 스토리 전개에 따라 끊임없이 자기 수양과 개선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도덕을 가진 이상적 인물로 성장한다. 중국의 신괴 영화에서 중국홍(中國紅), 즉 붉은색이 자주 활용된다. 영화에서 중국홍은 사랑과 정의,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일본 신괴 영화의 특징은 신도(神道)교의 영향하에 자연에 대한 존중, “영(靈)”에 대한 숭배가 표현된다. 일본은 ‘수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인간관계의 소원함이 절제된 사회 현상으로 드러나고, 이에 대한 저항과 불만은 신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형상화에 있어 사랑으로 차가운 마음을 감화시켜 자기 구원을 얻는 것으로 표현된다. 초록색은 ‘일본의 색’으로 불리며 일본의 신괴 영화 역시 초록색으로 일본인들의 자연에 대한 보호와 자연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표현한다.

신괴 요소는 전통적인 문화 요소로서 민족 문화를 드러낸다. 한·중·일의 “신괴 열풍” 현상이 가지는 가치는 민족 고유의 특색 및 정취를 활용하여 민족 문화의 근원적 생명력의 재창조이며, 세계화 추세 속에 민족 고유의 색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보다 풍요롭고 다양한 심미적 체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측면일 것이다. “상상을 통한 진실의 반영”은 신괴 영화가 가진 고유한 특징이며, 시대를 초월한 생명력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아닌 판타지와 괴이함을 보여주면서 또 삶의 실제 모습을 표현하여 사람들이 허황하고 신기함을 느끼는 한편, 현실 사회의 상태도 엿볼 수 있게 하여 사물의 발전 법칙을 나타내고 인생 철학과 사회의 규칙을 표현하였다.

## 참 고 문 헌

- 수목무(水木茂). (2004.10.). 『세계요괴사전(世界妖怪事典)』, 대만신성출판사
- E.M. Мелетинский. (2009). 『신화시학』 제3호
- 이노우에 엔료(井上圓了). (1989.10.). 『요괴학(妖怪学)』, 대만발해당문화공사
- 예수센. (2011). 『신화의 원형 비평』, 산시사범대학 출판사, 제1쪽
- 우메하라 타케시(梅原猛). (2006.7.). 『세계 속의 일본종교(世界中的日本宗教)』, 사천인민출판사
- 박종금(朴钟锦). (2004). 「한국종교 속 다양한 공존과 한국인의 국민적 성격(韩国宗教的多元共存和韩国人的国民性格)」, 세계민족 제6호
- 양완로(梁婉璐). (2016). 「2004년 이후 국내 신화소재의 TV 애니메이션 연구(2004年以来国产神话题材电视动画剧研究)」, 남경사범대학 석사학위논문
- 황사유(黄思维). (2017). 연변대학 석사 논문, 「21세기 한국 애니메이션 미학 지침(21世纪韩国动画电影美学指涉)」
- 왕정(王婷). (2013). 「영화 언어에서의 색채의 특징과 기능에 대한 논의(论色彩在电影语言中的特性及功能)」, 서북민족대학 석사 논문
- 당몽소(唐梦笑). (2015). 「국내 요괴형 인터넷 애니메이션: 다원화 문화의 요동 속 선택과 상실(国产妖怪类网络动画:多元文化激荡中的选择与迷失)」, 동화전영 제6호
- 오신평(吴新平). (2013). 「중국의 현대 신화소재를 활용한 문학연구(中国现代神话题材文学研究)」, 길림대학 박사학위논문

- 
- 1) 예수센 『신화의 원형 비평』, 산시사범대학 출판사, 2011년, 제1쪽
  - 2) 경사(慶事)롭고 길한 징조(徵兆)
  - 3) 재앙(災殃)이 되는 괴이(怪異)한 일
  - 4) 박종금(朴钟锦), 「한국종교 속 다양한 공존과 한국인의 국민적 성격(韩国宗教的多元共存和韩国人的国民性格)」, 세계민족 2004년 제6호
  - 5) 수목무(水木茂), 『세계요괴사전(世界妖怪事典)』, 대만신성출판사 2004년 10월
  - 6) E.M. Мелетинский, 《신화시학》2009년 제3호
  - 7) 문이재도(文以載道) : 중국《통서문사》에서 유래. 문장에 도리를 담는다.
  - 8) 우교우락(寓教于乐) : 호라티우스 《시학》에서 유래. 가르침과 즐거움은 어우러져야 하는 것으로 즐거움 속에서 가르침을 얻게 한다.
  - 9) 경세치용(经世致用) : 중국《사원》에서 유래. 국익을 위한 학문을 한다.
  - 10) 환중유진(幻中喻真):현실을 가상에 빚대는 것이란 현실이

